

## ‘서(恕)’ 해석의 발전과정과 기독교 윤리에 관한 고찰\*

- 정약용의 추서(推恕)와 관련하여

엄국화(남서울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주자학 전통의 서(恕) 이해: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

1. 퇴계의 ‘서’ 이해
2. 율곡의 ‘서’ 이해
3. 우암의 ‘서’ 이해

### III. 탈주자학적 서(恕) 이해: 하곡 정제두, 성호 이익

1. 하곡의 ‘서’ 이해
2. 성호의 ‘서’ 이해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5.02>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정약용(丁若鏞)의 소사학(昭事學)에 대한 연구(2019)』 중 3장 2절 “충서(忠恕)와 추서(推恕)”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

• ABSTRACT •

---

A Christian Ethical Approach on the Hermeneutics of Seo(恕): Related  
to Jeong Yak-yong(丁若鏞)'s Chuseo(推恕)

Lecture, Uhm, Kookhwa (Namseoul University)

This article introduces some interpretations of 'Seo(恕)' that were not noticed in previous studies. The previous scholars were also interested in the concept of 'Seo'; where as, "Seo" in Jeong Yak-yong(丁若鏞) is uniquely related to Christian ethics. Therefore,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retation of Jeong Yak-yong, it is necessary that major scholars' interpretation of 'Seo' has to be examined firs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eongho I-ik and Jeong Yak-yong should be examined in that a core concept of 'Sosahak(昭事學)' in Jeong Yak-yong's interpretation of 'Seo' is directly influenced by Seongho I-ik(星湖 李瀼). Thus, this study delves into the Christian ethical implication in Jeong Yak-yong's concept of "ChuSeo(推恕)" through the study of interpretation of "Seo."

**Key words:** Jeong Yak-yong(丁若鏞), Seo(恕), Chungseo(忠恕), Chuseo(推恕), empathy

---

## I. 들어가는 말

정약용(侯菴 丁若鏞, 1762-1836)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용(中庸)』을 해석하면서 ‘소사지학(昭事之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sup>1)</sup> 정약용의 ‘소사학(昭事學)’은 일차적으로는 절대자인 ‘상제(上帝)’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상제를 섬기는 것[事上帝], 또는 하늘을 섬기는 것[事天]은 결국 윤리(인륜[人倫])와 관계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약용이 여러 저서를 통해 강조하는 ‘행사(行事)’는 인륜에서 드러나는 것, 즉 윤리적 영역에서의 실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사상제’를 인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서(愬)’이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저술활동에 매진했는데, 제일 먼저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을 ‘경학(經學)’이라고 하는데, 경학과 관련하여 정약용은 사서(四書)가 모두 ‘서’ 한 글자에 대한 해설서라고 단언하고, 사서의 해설서 곳곳에 ‘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특히 기존 주자학의 ‘충서일관(忠愬一貫)’을 비판하고 ‘충’보다 ‘서’를 내세운다. 그러면서 ‘서’의 의미를 ‘용서’가 아닌 ‘추서(推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정약용 이전의 ‘서’에 대한 해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약용의 ‘서’ 개념은 기독교 윤리와 관련이 있다는 특이점이 있는 것이지, 정약용 이전의 학자들이 ‘서’에 대해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약용의 ‘서’ 해석의 특징이 밝히기

1) 『(國譯)與猶堂全書』, 經集 I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86), p.201, “천명을 본심에서 구하는 것은 성인이 밝게 섬기는 학문이다(求天命於圖錄者, 異端荒誕之術也, 求天命於本心者, 聖人昭事之學也).”

위해서는 주요 학자들의 ‘서’ 해석을 먼저 살펴야 한다. 또한 정약용의 ‘서’가 ‘소사학’의 핵심 개념이 된 것은 성호 이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 II. 주자학 전통의 서(愆) 이해: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

### 1. 퇴계의 ‘서’ 이해

정약용의 ‘서’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유학자들의 ‘서’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1568년에 선조(宣祖)에게 올린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笱)』에서 ‘서(愆)’가 두 군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차자(笱子)에서 ‘지경(持敬)’을 설명하면서 『논어』의 ‘충서(忠恕)’를 인용하는 대목이고,<sup>2)</sup> 두 번째는 『성학십도』의 일곱 번째 그림 「인설도(仁說圖)」에서 주자의 「인설(仁說)」의 글을 인용하는 대목이다.<sup>3)</sup> 『성학십도』에서 퇴계가 ‘서’에 대해 특별히 설명한 것은 없으며, 퇴계의 ‘서’에 대한 해석은 주자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율곡 이이와의 서신에도 드러나 있다.

요씨(饒氏)의 “도(道)는 천리(天理)이고, 충서(忠恕)는 사람의 일이다.”라는 설을 전에도 늘 의심했습니다. 이제 보내온 편지에서 이 설을 그르다고 하면서 주자의 “인(仁)은 도(道)이고 충서는 배우는 자가 공부를 쌓는 곳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증명하였는데, 이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sup>4)</sup>

2) 『退溪集』 7권, 「進聖學十圖笱」, “又從而俛焉孳孳, 既竭吾才, 則顏子之心不違仁, 而爲邦之業在其中, 曾子之忠恕一貫, 而傳道之責在其身.”

3) 『退溪集』 7권, 「進聖學十圖笱」, “蓋公則仁, 仁則愛, 孝悌其用也, 而恕其施也, 知覺乃知之事, … 事親孝, 事兄悌, 及物恕, 則亦所以行此心也.”

4) 『退溪集』 14권, 「答李叔獻問目」, “饒氏道是天理, 忠恕是人事之說, 舊亦每疑之, 今來

퇴계는 『중용』의 ‘충서’에 대한 쌍봉 요씨(雙峯 饒氏)의 해석에 의심되는 바가 있던 차에, 율곡이 주자의 해석으로 요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을 옮겨 여겨 그것을 긍정하였다. 또 퇴계가 김이정(金而精)에게 보낸 답신에도 ‘서’가 언급되어 있다.

수신(修身)은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을 위주로 하고 분한 생각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고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하는 노력으로 보충한다면, 행실이 독실하지 않음이 없어 생각이 조급하고 잡스러운 데로 이르지 않고, 행동이 전도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의(義)를 바르게 하고 도리를 밝히고, 사물을 접하는 것은 ‘서’를 실행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일로 한다면(行恕反己), 독실한 행실이 또 사물에 드러날 것이니 부박하고 망령됨은 근심할 바가 아니며 경솔함은 염려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sup>5)</sup>

퇴계는 ‘사물을 접하는 것[接物]’에 대해 “서’를 실행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일[行恕反己]”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퇴계가 『중용』에 관해서 조카 교(喬)와 나눈 문답이 있는데, 『중용』의 ‘충서’와 『논어』의 ‘충서’를 어떻게 절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주자가 남헌(南軒)에게 답한 편지에 “내가 생각건대, 충서의 설에 대해 명도(明道)는 사람의 분수에 나아가 천심(淺深)을 구분하여 말하였고, 이천(伊川)은 이치에 나아가 상하(上下)를 두루 꿰어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분수에서 말하면 ‘도에 가기가 멀지 않다[違道不遠].’는 것은 현인(賢人)이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나가는 일이고, ‘하나로 꿰었다[一以貫之].’는 것은 성인(聖人)이 자기

喻非之，而引朱子仁是道，忠恕是學者下工夫處一語，以爲證，此意甚善。”

5) 『退溪集』 29권, 「答金而精」, “修身主於忠信篤敬，而補之以懲窒遷改，則行無不篤，而心慮不至於躁雜，行己不至於顛倒矣，處事以正義明道，接物以行恕反己，則篤行又見於事物，而浮妄非所憂，泛忽非所慮矣。”

마음을 미루어 나가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치에서 말하면 충(忠)은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서(恕)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나가는 것뿐인데, 다만 다하게 하는 소이(所以)와 미루어 나가게 하는 소이는, 명도의 말처럼 성인과 현인이 구분되어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그 본주(本註)에, “성인은 비록 미루어 나가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자기를 말미암아 남에게까지 미치는 것[由己及物]은 충(忠)과 상대하여 말한 것이니, 이 역시 미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였다.<sup>6)</sup>

퇴계의 답변은 주자의 답변을 인용하는 것에 그친다. 퇴계의 언행록에도 ‘서’에 대한 문답이 있다.

문기를, “자기로써 물(物)에 미치는 것[以己及物]과 자기로 미루어 물(物)에 미치는 것[推己及物]이 어째서 인(仁)과 서(恕)의 구별이 됩니까?” 하니, 선생이 답하기를, “자기에게 본래 있는 것으로써 저절로 물에 미치기 때문에 인이 되는 것이요,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미루어 남에게 미치고자 하기 때문에 서(恕)가 되는 것이다.”하였다.<sup>7)</sup>

『논어강록(論語講錄)』에서 퇴계는 주자의 ‘서’에 대한 해석인 ‘추기급물(推己及物)’의 ‘추기(推己)’에 대해,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미룬다’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퇴계의 ‘서’에 대한 이해는 주자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 6) 『退溪集』 40권, 「答窩姪問目」, “朱子答南軒書曰, 忠恕之說, 竊意明道是就人分上, 分別淺深而言, 伊川是就理上, 該貫上下而言, 若就人分上說, 則違道不遠者, 賢人推之事也, 一以貫之者, 聖人之不待推也, 若就理上平說, 則忠只是盡己, 恕只是推己, 但其所以盡所以推, 則聖賢之分不同, 如明道之說耳, 本註聖人雖不待推, 然由己及物, 對忠而言, 是亦推之也.”
- 7) 『退溪集』, 「言行錄」 2, “問以己及物推己及物, 仁恕之別, 答曰以己所固有而自然及物, 故爲仁, 物推所欲惡而要以及人, 故爲恕.”

## 2. 율곡의 ‘서’ 이해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의 ‘서’에 대한 이해는 앞서 퇴계와의 서신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율곡이 1575년에 선조에게 올린 율곡의 대표적인 저서 『성학집요(聖學輯要)』에 ‘서’가 두 군데에서 등장한다. 먼저는 『대학』의 ‘혈구지도(絜矩之道)’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충서(忠恕)가 도(道)에서 떨어진 것(違)이 멀지 않다. 나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주자가 말하기를, “나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忠)이요,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은 서(恕)이다. 그리고 위(違)는 떠난다는 뜻이니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서로 떨어지는 것이 멀지 않다는 말이다.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같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이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장자(張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면 인(仁)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sup>8)</sup>

율곡은 『대학』의 핵심어 중 하나인 ‘혈구지도’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중용』의 ‘충서’를 인용하고, 그 해석으로 ‘주자의 충서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지 않았다. 두 번째 ‘서’가 나오는 곳은 마지막 ‘성현도통(聖賢道統)’인데, 이 부분도 먼저 ‘충서’가 나오는 『논어』를 먼저 인용하고 주자와 정자의 해석을 붙인다.

주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 나가는 것을 서(恕)라 한다. ... 이 이외에는 본래 다른 법이 없으니 또한

8) 『栗谷全書』 25권, 「聖學輯要」 7, 爲政第四下, “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朱子曰, 盡己之心爲忠, 推己及人爲恕, 違去也, 言自此至彼, 相去不遠也, 以己之心, 度人之心, 未嘗不同, 故己之所不欲, 則勿以施於人, 張子所謂以愛己之心愛人, 則盡仁是也.”

미루어 갈 것도 없다. 증자는 이런 것을 알았으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는 이는 자기를 다하고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였다. 대개 지극히 성실하고 쉽이 없다는 것은 도(道)의 체(體)이니, 일만 가지 현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만물이 각각 그 마땅한 바를 얻는 것은 도의 용(用)이니, 한 근본이 일만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하나로써 관통한[一以貫之] 실상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정자가 말하기를,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각 그 재주에 따라서 하는데, ‘나의 도는 하나로써 관통하였다.’는 것은 오직 증자만이 통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자께서 이렇게 고해 준 것이요, 증자가 문인에게 ‘선생님의 도는 충(忠)·서(恕)뿐이다.’라고 고한 것 역시 공자가 증자에게 고해 준 것과 같다.” 하였다.<sup>9)</sup>

성리학의 도통론(道統論)에 관한 부분이므로, 율곡은 공자의 도가 증자로 이어지는 부분을 『논어』의 ‘일이관지(一以貫之)’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성학집요』에서 ‘서’에 대한 해석은 주자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율곡의 어록에서 언급한 ‘서’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부분도 있다. 먼저 김진강(金振綱)과의 대화에서 ‘서’는 『성학집요』와 맥락이 다르지는 않다.

어떤 사람이 인(仁)과 서(恕)를 물었다. 김진강이 대답하기를, “인은 자연적이고, 서는 인위적이다.” 하였다. (문) 선후(先後)를 구분할 수 있는가? (답) 물에 비유하면, 인(仁)은 물의 근원이고 서(恕)는 물의 흐름이다. 선생이 말씀

9) 『栗谷全書』 26권, 「聖學輯要」 8, “朱子曰,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 自此之外, 固無餘法, 而亦無待於推矣, 曾子有見於此, 而難言之, 故借學者盡己推己之目, 以著明之, 欲人之易曉也, 蓋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殊之所以一本也, 萬物各得其所者, 道之用也, 一本之所以萬殊也, 以此觀之, 一以貫之之實, 可見矣, 程子曰, 聖人教人, 各因其才, 吾道一以貫之, 惟曾子爲能達, 此孔子所以告之也, 曾子告門人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亦猶夫子之告曾子也.”

하기를, “서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을 미루어 가는 것이다.” 하였다.<sup>10)</sup>

김진강이 어떤 사람과 ‘인’과 ‘서’에 대해 논한 것인데, 이에 대해 율곡이 ‘서는 억지로 하는 것(勉強)이 아니고 인을 미루어 가는 것(推仁)’이라고 설명한다. 이 역시 주자의 ‘서’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계집(牛溪集)』에 기록된 ‘서’에 대한 해석은 조금 특이하다.

‘몸에 간직한 바가 용서하지 않는다[所藏乎身不恕]’라는 대목에 대하여, 선생이 말하기를, “여기의 서(恕) 자는 실은 충(忠) 자를 가리킨 것이니, 이것은 서(恕)가 몸에 간직된 것으로써 서 자를 빌어서 충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sup>11)</sup>

이것은 『대학』에 나오는 ‘소장호신불서(所藏乎身不恕)’에 대한 율곡의 해석인데, 율곡은 이 문장에 있는 ‘서’에 대해서 사실은 ‘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주자의 해석을 계승하면서 더욱 ‘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3. 우암의 ‘서’ 이해

퇴계나 율곡에 비해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서’에 대한 논의가 더 충실한 편이다.

서(恕) 자에 반드시 충(忠) 자가 겸하여졌다는 설에 대하여. 이 설은 원래

10) 『栗谷全書』 31권 〈語錄〉, 「金振綱所錄」, “或問仁恕, 振綱答曰, 仁是自然底, 恕是勉強底, 曰可分先後乎, 曰譬之於水, 則仁者, 水之源也, 恕者, 水之流也, 先生曰, 恕非勉強也, 是惟仁之推也.”

11) 『栗谷全書』 32권 〈語錄下〉, 「牛溪集」, “所藏乎身不恕, 先生曰, 恕字實指忠字, 是恕之藏乎, 身者, 借恕字而言忠.”

의심할 것이 없네. 충(忠)은 체(體)요 서(恕)는 용(用)이니 체와 용은 한 근원이기 때문에 이같이 말을 한 것이네. 온 편지에 ‘서(恕)는 홀로 행하지 못하여 반드시 자기를 다 쏟는 충(忠)이 있는 다음에야 행할 수 있다.’고 한 말은 뜻이 매우 적당치 않네. 충이 거울이라면 서는 비치는 것이며, 충이 물체라면 서는 그림자이네. 때문에 서를 말하면 충은 거기에 내재하여 있네. 만일 편지에서 의 말과 같다면 서와 충이 각기 다른 곳에 있어 서가 행하고자 하여도 스스로 행하지 못한 때문에 충을 기다린 뒤에야 마침내 행한다는 것이니 잘못 본 병통이 아니라면 표현상의 병통인 듯싶네.

또 홀로 행한다(單行)의 두 글자가 매우 적당치 않네. 자네는 충과 서가 동반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자가 말한 겸(兼)한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단지 서에는 곧 충이 내재한다고 말한 것이네. 때문에 《대학》에 ‘몸에 서(恕)를 지니지 못하였다.[所藏乎身不恕]’고 한 것이네. 서(恕)는 사물에 시행하는 것이며 ‘몸에 간직한 것’이라 함은 서의 근본을 가리켜 한 말이네. 때문에 주자는 ‘사물과 접하는 때에 나아가 충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네. 이상의 여러 가지 설을 합하여 본다면 의심난 뜻을 분변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네.<sup>12)</sup>

‘서’를 설명할 때 ‘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논어』 「이인」편과 『중용』에서 ‘충서’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주자와 정이천은 ‘충서’를 체용론(體用論)으로 해석하여, ‘서’보다 ‘충’을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암도 충체서용(忠體恕用)의 해석들에서 충을 ‘거울’과 ‘물체’로, 서를 ‘비치는 것’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에 ‘충’이 내재한 것이라고 하였다.

12) 『宋子大全』 91권, 「答李汝九」, “恕字須兼忠字說, 此說, 元無可疑, 忠是體恕是用, 體用一源, 故如是云云耳, 來說云恕不能單行, 而必有盡己之忠, 然後乃可行也, 此語意殊未安, 夫忠如鏡, 恕便是能照, 忠如形, 恕如影, 故言恕則忠在其中矣, 若如來說, 則恕與忠, 各在一處, 恕欲行而不能自行, 故待忠而後乃行也, 若不是見時病, 則似是說時病也, 且單行二字, 甚未安, 高明以忠恕爲將並行者耶, 程子所謂兼云者, 蓋只言恕而忠便在其中云耳, 故大學言所藏乎身不恕, 夫恕是施於物者, 曰藏乎身, 是指恕之本而言, 故朱子曰, 就接物上見得忠, 以此數說, 合而觀之, 則所疑之意, 不難辨矣.”

우암은 ‘극복[克己復禮]’, ‘경(敬)’과 함께 ‘서’를 언급하기도 한다.

성현의 가르침은 인(仁)을 구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그 힘쓰는 방도로 말하자면 이른바 극기복례(克己復禮)와 경(敬), 서(恕) 등의 설(說)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는가.<sup>13)</sup>

‘극기복례’는 『논어』에서 공자가 안연에게 ‘인’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한 말이다. ‘경’ 역시 『논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 특히 정이천이나 주자 등 성리학자들이 더욱 강조했던 단어이다. 그런데 우암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서’를 ‘극복’, ‘경’과 더불어 언급했다는 것은 율곡이나 퇴계와 비교할 때 더욱 ‘서’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sup>14)</sup>

우암은 퇴계의 『사서질의(四書質疑)』에 대해 비평적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충서’를 언급한다.

이미 ‘묘도정의(妙道精義)’라 하였으면 이것은 바로 본원극치처(本原極致處)인데 어찌 두서(頭緒)가 여러 갈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논어》는 다 일상생활에 관계된 하학(下學)의 일들을 말했고, 오직 증자와 자공에게만 일관(一貫)에 대한 말이 있다. 주자가 일찍이 학자를 위해 이 일을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증자는 문인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할까 염려하여 배우는 사람들의 충서(忠恕)라는 이름을 빌려 그것을 밝힌 것이다. 또 자공도 당시에 아직 깨닫지 못한 점이 있어 오히려 부자(夫子)는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묘도정의’가 어찌 성인이 평범하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겠는가. 만약 《논어》에 기록된 것은 비록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이지만,

13) 『宋子大全』 119권, 「答金是重」, “聖賢之教, 莫大於求仁, 若其用力之方, 則所謂克復敬恕等說詳矣, 豈可舍此而他求乎.”

14) 서(恕)는 경(敬)과 함께 경서(敬恕)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논어집주(論語集註)』의 “克己復禮, 乾道也, 主敬行恕, 坤道也.”라는 문장에서 등장하는 ‘주경행서(主敬行恕)’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모두가 묘도정의에서 발현된 것이다.’고 한다면 거의 합당하겠다.<sup>15)</sup>

『논어』에서 ‘일이관지(一以貫之)’는 공자와 증자의 대화(일관장)와 공자와 자공의 대화(『위령공』 2장)에만 등장한다. ‘일관장’에서 증자는 공자의 ‘일이관지’에 대해 충서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묘도정의’에 대해 ‘일이관지’의 도로 설명하면서 충서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서’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우암의 ‘충서’에 대한 정이천의 체용론적 해석은 김간(金幹)이 기록한 어록에서도 등장한다.

[김간]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盡己)을 충(忠)이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推己及物)을 서(恕)라 한다면, 반드시 진기(盡己)의 충(忠)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급물(及物)의 서(恕)가 있게 되므로, 진실로 충이 없으면 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체가 있는 뒤에 그림자가 있고 형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충은 발하지 않은 체(未發之體)요 서는 이미 발한 용(既發之用)이니, 이미 발한 서(既發之恕)에 꾸준히 힘쓰면 이를 확충(擴充)시켜 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선생] 진기(盡己)하는 것이 충(忠)이요 급물(及物)하는 것이 서(恕)이니, 모름지기 진기를 먼저 하여야 이를 미루어 남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은 옳지 않다.<sup>16)</sup>

15) 『宋子大全』 133권 (雜著), 「退溪四書質疑疑義三」 “既曰妙道精義則是本原極致處, 何以曰頭緒多端耶, 且論語皆說日用下學之事, 惟於曾子, 子貢乃有一貫之說, 朱先生嘗爲學者力言此事, 然曾子懼門人未達則假學者忠恕之名而以明之, 子貢其時猶有所未達則以夫子爲多學而識之, 然則妙道精義, 豈聖人尋常教人者哉, 若曰論語所載雖日用間事, 而無非妙道精義之發見云則可庶幾也.”

16) 『宋子大全』 語錄 2, 「金幹錄」, “幹問盡己之謂忠, 推己及物之謂恕, 必有盡己之忠, 然後方有及物之恕, 苟無忠, 做恕不出, 譬如有形而後有影, 苟無形做影不得, 此理覺甚分明, 然或者謂忠者未發之體, 恕者既發之用, 苟能勉強用力於既發之恕, 可擴而至於忠, 此說如何, 先生曰盡己底是忠, 及物底是恕, 須先要盡己, 方可推而及物, 或說非

우암은 김간이 ‘충서’에 대해 ‘충’ 다음에 ‘서’가 있다는 ‘선충후서(先忠後愬)’로 설명한 것에 동의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서’를 꾸준히 힘써 확충시켜서 ‘충’에 이를 수 있다는 이론은 배격한다.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야 한다는 주자식의 충서 해석을 따르는 것이다.

### III. 탈주자학적 서(愬) 이해: 하곡 정제두, 성호 이익

#### 1. 하곡의 ‘서’ 이해

조선후기로 넘어오면서 경전에 대한 주자학 일변도의 해석에서 점차 탈피하게 된다. 탈주자학적 관점에서 ‘서’를 해석한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양명학의 하곡 정제두와 서학에 심취한 성호 이익이 있다.

조선 양명학의 대표적 인물인 하곡 정제두(霞谷 鄭齊斗, 1649-1736)는 『대학』에 대한 해설서로 「대학설(大學說)」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서’를 ‘충서’가 아니라 ‘추서(推愬)’로 설명한다. 정제는 ‘서’를 ‘추기급물’ 주자는 ‘추기급인’으로 정의한 것과 달리, 하곡의 『대학』 해석은 ‘추서’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가치국장은 먼저 그 도를 말하고 다시 그 교(教)를 말하였으며, 평천하장은 그 교를 말한 다음 그 미루는 것을 말하였다. 치국장에서는 실지 힘쓰는(用功) 곳이 보호하여 사랑(保慈)하는 데 있고, 천하장에서는 실지 힘쓰는 곳이 미루어 헤아려 줌(推愬)에 있다. 오직 이 두 설(說)이 있을 뿐이다.<sup>17)</sup>

이는 『대학』의 후반부 ‘제가치국(齊家治國)장’과 ‘평천하(平天下)장’을

是.”

17) 『霞谷集』 13권, 「大學說」, “齊治章首言其道, 又言其教, 平天下章言其教而乃及其推, 治國章實用功處, 保慈而已, 平天下章實用功處, 推愬而已, 惟此二說而已.”

설명하는 부분인데, ‘평천하장’의 핵심어는 ‘혈구지도’이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대학』의 ‘혈구지도’를 『중용』에서 나오는 ‘충서’로 설명했는데, 하곡은 ‘충서’가 아닌 ‘추서(推恕)’ 중심으로 설명한다. 하곡은 ‘추서’에서 ‘추(推)’의 의미를 강조한다.

맹자는 “나의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하여 남의 늙은이에 미치고, 나의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여 남의 어린이에게 미치면 천하 다스리기는 손바닥 놀리기와 같다. 시(詩)에 이르기를 나의 처에게 법이 되어 형제에게 이르고 그리하여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으니, 이 마음을 들어서 베푸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推] 나아가면 사해(四海)를 보존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어[推] 나아가지 아니하면 처자도 보존할 수 없다. 옛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크게 나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는 바를 잘 미루어 나아갔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는 이 마음으로써 미루어 미치는 것[以是心推及]을 말한 것이다. 《효경》은 이것을 옮겨[移] 저것을 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이는 《대학》의 치국장의 일ियो, 맹자는 이 마음을 미루어[推] 나아가 저기에 더해 줌을 말하였으니, 이는 《대학》의 평천하장의 설(說)이다. 치국함에는 옮김[移]으로써 말하고, 평천하하는 데는 미룸[推]으로써 말하는 것은 멀고 가까움이 있기 때문이다.<sup>18)</sup>

하곡은 ‘추’와 ‘이(移)’를 구분하는데, 의미의 큰 차이는 없으나 멀고 가까움의 정도 차이 때문에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곡의 ‘서’에 대한 논설은 전반적으로 주자의 ‘추기급인’의 ‘서’를 더욱 강조하는 인상을 준다.

18) 『霞谷集』 13권, 「大學說」, “孟子曰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詩云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舉斯心, 加諸彼而已, 故推恩足以保四海, 不推恩無以保妻子, 古之人所以大過人者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 此言以是心推及也, 孝經移此而爲彼, 是大學治國章事也, 孟子推是心加之, 是大學平天下章說也, 治國則以移言之, 平天下則以推言之者, 遠近之謂也, 故其化亦有效與懷之異.”

평천하는 미루어 나아가 이름[推至]으로써 말하는 것이니, 그 미루어 나아가 이름도 곧 ‘학(學)’이며 곧 ‘교(教)’이다. 그 도는 멀고 가까움과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요 더하고 덜하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은 ‘제(齊)’와 ‘의(亘)’로써 말하고, 나라는 ‘교(教)’와 ‘흥(興)’으로써 말하니 이는 남과 나를 말하는 것이요, 나라는 옮긴 배所移로써 말하고, 천하는 추급(推及)으로써 말하니 이는 멀고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다.<sup>19)</sup>

하곡의 ‘서’ 해석은 주자의 ‘서’ 해석인 ‘추기급인’을 차용하지만, 퇴계, 율곡, 우암보다 ‘추(推)’를 훨씬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곡의 해석은 ‘서’에 대해 ‘용서’라는 개념보다 ‘추서’라는 개념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 2. 성호의 ‘서’ 이해

‘서’에 대한 색다른 해석은 양명학뿐만 아니라, 기독교서학(西學)의 영향권에서도 나타난다. 서학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근기남인(近畿南人)의 영수 성호 이익(星湖 李瀾, 1681-1763)의 글을 통해 이전 유학자들에 비해 ‘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호의 글에서도 하곡과 마찬가지로 ‘추서’라는 단어가 발견된다.

순오(荀吳)가 배반해 온 사람을 거절한 것은 송 양공(宋襄公)이 스스로 어리석은 것을 한 것과 거의 같은 경우이니, 본받을 일은 못 된다. 적을 맞이하여 임기응변해야 할 상황에서 만약 자기를 미루어 서한다면[以己推愬] 반드시 장차 “남이 나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차마 어떻게

19) 『霞谷集』 13권, 「大學說」, “平天下以推至言, 其推至也者, 卽亦學也亦是教也, 其道有遠近多寡而已, 無增減高下也, 家以齊以宜言之, 而國以教以興言, 是人我之謂也, 國以所移言, 而天下則用推及言, 此遠近之謂也.”

남에게 칼날을 겨누겠는가. 남이 나의 성(城)을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성을 먼저 공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이다.<sup>20)</sup>

이 글에서 ‘추서’는 ‘서’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논어』에서 ‘서’는 공자와 자공과의 대화에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으로 설명되는데, 성호는 그 의미를 그대로 풀이하면서 표기는 ‘추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의 ‘서’를 ‘관(寬)’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기도 한다.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할 덕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서(恕)’이다. ‘서’ 자는 ‘관(寬)’과 의미가 같다. 남에게 관대하기란 진실로 어려운 일이며 자신에게 관대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sup>21)</sup>

‘관’이라는 것은 ‘관용’의 의미로 즉, 남의 허물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는 용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리링(李零)은 ‘서’를 ‘관서’로 오해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였다.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서다.” 즉 “자기의 마음으로 타인의 마음을 삼는 것을 서라고 한다.”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을 시키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다. 서는 관서(寬恕), 즉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말하는 이른바 관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그러움이다.<sup>22)</sup>

20) 『星湖全集』 47권 〈雜著〉, 「維州論」, “荀吳之拒人, 殆於宋襄之自昧, 不足效也, 臨敵制變, 若一以己推恕, 則必將曰人以鋒刃加於我, 我所不欲, 我安忍以鋒刃加乎人哉, 人攻吾城則不願也, 我可以先于其城哉.”

21) 『星湖全集』 56권 〈題跋〉, 「書禹氏家藏帖」, “有一言可以終身行之者恕也, 恕之言猶寬也, 寬人固難, 自寬尤不易.”

22) 리링, 喪家狗, 김갑수 역, 『집 잃은 개 - 〈논어〉읽기, 새로운 시선의 출현』 2 (파주:

리링은 서에 대해 ‘관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서’를 용서 위주로 이해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는 ‘서’를 ‘책(責)’과 대조하여 설명하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

공자는 말하기를 “자기 몸을 책(責)하는 것은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는 것은 박하게 한다.” 하였는데, 이는 성현의 사업이니, 자기에게 있어서는 극기(克己)의 용(勇)이 있고, 남에게 있어서는 널리 감싸주는 인(仁)이 있는 것이며, 범충선(范忠宣)은 말하기를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서(恕)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서한다면, 성현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된다.” 하였는데, 이는 이미 주자(朱子)의 감정을 거친 것이다. 즉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책함은 옳거니와, 만약 자기를 서하는 것이 이미 혼미한 이로써 남을 처우하여 그 투박(儉薄)하고 나태함을 용납한다면 어찌 능히 성현의 지위에 이르겠느냐?”는 것이다. 무릇 남을 책하는 데는 밝고 자기를 책하는 데는 어두운 것이 진실로 보통 사람의 정이다.<sup>23)</sup>

이 부분은 『성리자의(性理字義)』에서도 인용된 것이다. 그런데 『성리자의』에서 성리학의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서’를 ‘충서체용론’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주자도 ‘서’를 용서로만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호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점을 감안하면 앞서 ‘서’를 용서와 비슷한 의미의 관서로 이해한 것은 모순된 입장이다.

성호는 ‘서’를 ‘투(妬)’와 대조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군자가 말 한마디로 중신토록 행할 수 있는 것은 서(恕)와 같음이 없다.

---

글항아리, 2012), 224.

23) 『星湖僿說』 9권, 〈人事門〉, 「長者言」, 「孔子曰, 躬自厚而薄責於人, 此聖賢事業, 在己則有克己之勇, 在人則有包荒之仁也, 范忠宣則曰, 以責人之心責己, 以恕己之心恕人, 不患不到聖賢地位, 此已經朱子勘破, 以責人之心責己則可矣, 若恕己既昏而以此處人容, 其儉情豈能到聖賢地位, 夫責人明而恕己昏者固, 凡人之常情.”

서(恕)란 것은 투(妬)의 반대이기 때문에 투(妬)를 그치게 하는 것도 서(恕)와 같은 것이 없다. 일에 따라 자신을 반성하여 과오가 있으면 곧 고칠 뿐이다.<sup>24)</sup>

이 글은 『논어』의 ‘중신장’을 인용한 것이데, ‘서’를 ‘투’의 상대어로 설정한 것은 성호의 특이한 해석이다. 성호는 ‘서’를 단순히 용서 또는 관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투’와 상대되는 ‘타인 이해’ 또는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이해했다.

또한 『성호사설』 「경사문(經史門)」의 〈일관(一貫)편〉과 〈충서(忠恕)편〉에도 ‘서’가 언급된다. 〈일관편〉에서의 ‘서’ 해석은 기존의 해석과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충서편〉의 ‘서’에 대한 해석만 소개한다.

중심(中心)은 충(忠)이 되고, 여심(如心)은 서(恕)가 된다는 이 두 구절은 마땅히 서로 감합(勘合)이 되었다 하겠다. 충·서는 다 해성(諧聲)이니 심(心)을 따라 중(中)이 성(聲)으로 되고, 심을 따라 여(如)가 성으로 되었다.

중이란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理)로써 말한 것이요, 여(如)란 대동(大同)의 뜻이니 일(事)로써 말한 것이다. 아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애(愛)가 주로 되고,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정(正)이 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은 반드시 임금 섬기는 데 매인 것이므로 중심이 충이 되고, 여(如)는 사람을 사랑하되 덕으로써 한다는 것이다. 인정이란 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그 못 사람과 더불어 공통된 마음이 바로 서(恕)다.<sup>25)</sup>

24) 『星湖僿說』 13권, 〈人事門〉, 「怨妬」, “君子一言可以終身行之者, 莫如恕, 恕者, 妬之反, 故止妬又莫如恕, 隨事察己有, 則旋改而已.”

25) 『星湖僿說』 25권 〈經史門〉, 「忠恕」, “中心爲忠如心爲恕, 此兩句宜相勘, 忠恕皆諧聲, 從心中聲從心如聲, 中者不偏以理言也, 如者大同以事言也, 事親愛爲主, 事君正爲主, 故忠必繫乎事君中心爲忠, 如曰愛人以德也, 人情皆同, 吾所愛惡, 人亦愛惡, 其與衆普同之心, 卽恕也.”

성호는 ‘충서’에 대해 설명하며 ‘충’은 반드시 임금 섬기는 데 매인 것이며, ‘여(如, 恕)’는 사람을 사랑하되 덕으로써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성호는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사군이충(事君以忠)’, 즉 ‘충’을 더 강조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서’를 ‘애인이덕(愛人以德)’이라고 달리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정약용의 ‘서’ 해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성호의 ‘서’ 이해에서 특이한 점은 ‘서’를 ‘공통된 마음(普同之心)’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서’를 ‘보편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규정한 것은 현대 학자들이 ‘서’를 ‘공감능력’이라고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 IV. 나가는 말

‘서’는 성리학 체계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한 개념이었다. 특히 주자가 정이천의 ‘충서체용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는 ‘충’의 기능적 측면으로만 해석되었다. 특히 봉건제 사회에서는 상호 간에 요구되는 ‘서’의 의미나, 목민관과 통치자에게까지 요구되는 ‘서’의 자세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리학과 관련하여 서양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도 『논어』의 ‘서’를 ‘공감능력’으로 이해하고, 『맹자』의 ‘측은지심’의 실천으로 이해한다.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이고, ‘인’은 공자사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서’를 공자사상의 핵심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서’는 현대의 다원주의와 관련하여 동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개념이다. ‘인’이나 ‘측은지심’과 달리 ‘서’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도 ‘서’는 ‘용서’라는 말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소사학’의 ‘서’ 개념은 ‘용서’뿐만 아니라, ‘공감’이나 ‘이해’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이러한 ‘서’의 의미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더불어 정약용의 ‘추서’에 대한 연구결과도 많이 축적되었다. 여기에 정약

용이 강조한 ‘추서’의 해석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강된다면 한국 전통 사상인 ‘서’와 기독교 윤리의 ‘공감’이 만나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보편적 윤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退溪集』.

『栗谷全書』.

『宋子大全』.

『星湖全集』.

『星湖僊說』.

『霞谷集』.

『國譯與猶堂全書』, 經集 I, 전주대학교출판부, 1986.

리링/ 김갑수 역. 『집 잃은 개 : 『논어 읽기』, 새로운 시선의 출현』. 파주: 글항아리, 2012.

엄국화, “정약용(丁若鏞)의 소사학(昭事學)에 대한 연구-추서(推愬)와 회(悔)를 중심으로.”(승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논문투고일: 2019년 10월 31일

심사게시일: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1일

---

• 국 문 초 록 •

---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정약용 이전의 ‘서’에 대한 해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약용의 ‘서’ 개념은 기독교 윤리와 관련이 있다는 특이점이 있는 것이지, 이전의 학자들이 ‘서’에 대해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약용의 ‘서’ 해석의 특징이 밝히기 위해서는 주요 학자들의 ‘서’ 해석을 먼저 살펴야 한다. 또한 정약용의 ‘서’가 ‘소사학’의 핵심 개념이 된 것은 성호 이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서’에 관한 해석 발전과정을 통하여 정약용의 ‘추서’ 개념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독교적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정약용(丁若鏞), 서(恕), 충서(忠恕), 추서(推恕), 공감

---